불경기에도 사리로띠' 판매는 날개 달아

니뽄 인도사리 코핀도(PT Nippon Indosari Corpindo)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927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빵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매출은 15% 증가한 1조 5,695억 루피아였으며 영업 수익이 52% 증가한 3,053억 루피아에 달했다. 서부 자바 브까시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은 22% 감소한 4,738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 반면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7개 지역(빠수루안, 스마랑, 메단, 빨렘방, 마까사르, 찌깐데, 뿌르와까르따)의 매출은 모두 증수했다. 인도사리 측은 국내 빵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서부 자바 뿌르와까르따와 반뜬 찌깐데에 새로운 공장을 가동했으며 두 공장의 매출은 빠른 속도로 올라 전체 매출을 이끌었다. 총 매출액에서 신공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뿌르와까르타 공장이 14%, 찌깐데 공장이 12%로 상승했다. 사측의 올해 순이익 목표를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310억 루피아로 설정한 바 있다. 니뽄 인도사리 코핀도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찌까랑 자바베까 단지에서 첫 공장을 개설했다. 제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2006년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HACCP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니뽄 인도사리 코핀도가 생산하는 사리로띠(Sari Roti) 전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감독청(BPOM)에 의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11/10)

□ 시사점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 방식이 급속히 서양화되면서 기존에 밥만 먹던 인구가 빵을 먹는 경우가 많아 빵의 소비량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몰을 중심으로 베이커리 점포가 급증함. 외국계 프랜차이즈로는 한국의 뚜레주르, 싱가포르의 브레드토크 등이 있음. 사리로띠의 경우 편의점 및 대형마트 뿐 아니라 와룽(인도네시아 전통 소매점으로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상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서민들이 식사 대용 및 간식으로 많이 구입하는 브랜드임. 이처럼 불경기에도 빵 수요 및 매출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차 인도네시아의 베이커리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